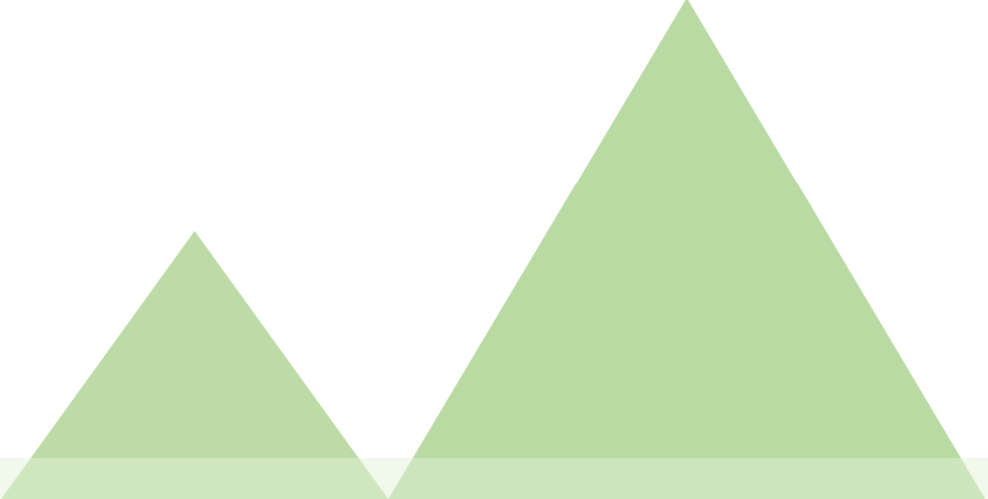


‘가르쳐야’ 하지만 ‘과고 들 수 없다’
—‘특공(特攻)’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갈등—

이와사키 게이스케 (가고시마 대학)
다타라 유스케 (국립특별지원교육 종합연구소)



1. 들어가며

가고시마현은 특공에 관한 여러 자료관을 보유하고 있다



지란 특공 평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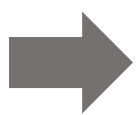
호타루관 도미야 식당



가노야 항공기지 자료관



반세이 특공 평화 기념관



특공대원의 죽음은 ‘전후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이해, 설명되어 왔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비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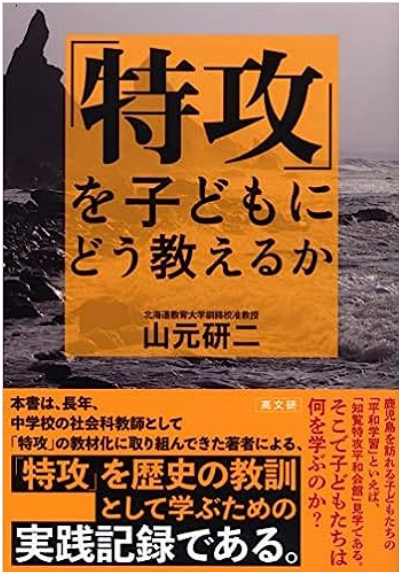
(1) 변화하는 ‘특공’의 기억 방식 : 기억의 계승에서 유지(遺志)의 계승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부터 70년이 지나고, 전쟁 체험의 계승을 책임지는 사람은 비체험자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기억의 계승’의 틀과 함께 ‘유지의 계승’의 틀이 기울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노우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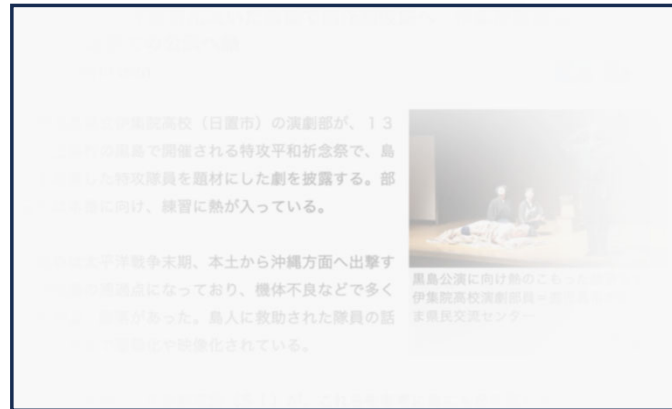
체험자의 퇴장에 따라 생존자가 계속 끌어안고 있었던 마음의 부채나 갈등 등의 복잡한 감정도 점차 열어져 날이 선 사자(死者)들의 메세지만이 남겨진다. (이노우에, 2021)



(2) 축적이 적은 사회과 교육 실천과 계승되는 ‘특공극(特攻劇)’



가고시마현 중학교 사회과 교사였던 야마모토 겐지씨에 의한 『「특공」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2022)의 출판.



‘특공’을 초중고에서 중심으로 다룬 실천 사례가 적음.

2023년 5월 10일 미나미니혼 신문(가고시마현)의 기사

특공극의 실천은 지금도 계속됨.

Question

‘사회과’에서는 실천하기 어렵고 ‘특공극’은 실천하기 쉽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Difficult History와 교사의 갈등: 선행 연구 리뷰

Zembylas & Kambani(2012)

교사는 역사 교육에서 논쟁 문제를 가르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역사 교육의 방법론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 저학년의 학생이 성숙한지에 대한 여부, 국민 국가라는 구조 속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을 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감정적인 불쾌함을 표현하였다.

Kello(2016)

만약 어떤 문제가 교사 자신에게 있어 민감할 때, 교육 방법의 레퍼토리를 교사가 풍부하게 하는 것(예를 들어, '교실의 다양성을 높이는' 학습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교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진실에 개방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교사들과는 다르다.

Question

'특공'을 다루는 것의 어려움 속에는 어떠한 '갈등'이 존재하는가?

3. 연구 방법 (1) 인터뷰 방법과 조사 대상자의 속성

● 인터뷰 대상자의 속성 및 스탠스

교사(가명)	속성	근무년수	시간/방법	특공을 사회과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아리타 선생님	남성	20~30년	73분/ZOOM	패전까지의 과정의 일부로서 가르침
반도 선생님	남성	20~30년	49분(구리하라 선생님과 동시 진행)/대면	"
구리하라 선생님	여성	20~30년	49분(반도 선생님과 동시 진행)/대면	"
테구치 선생님	남성	5~10년	76분/ZOOM	"
에스미 선생님	남성	20~30년	79분/ZOOM	'당신이라면 특공에 가졌는가'를 물음
후지이 선생님	남성	20~30년	63분/ZOOM	'특공'을 주제로 지역의 전쟁 체험 알기
고토 선생님	남성	30년~(퇴직)	78분/ZOOM	패전까지의 과정의 일부로서 가르침
히라카와 선생님	남성	5~10년	73분/ZOOM	학생들이 조사한 다양한 '특공'의 밸런스를 취함

4. 조사 결과 (1)교사는 ‘사회과’에서 ‘특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① 패전까지의 과정의 일부로서 가르침

[교과서의 특공에 대한 기술은 한 마디 뿐]으로 [‘특공’ 그 자체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는다]. 또는, 특공을 [패전까지의 과정으로 보고 가르치는] 것으로 [‘위기에 처한’ 상징으로서 특공] 작전이 있었던 것이나 [패전 직전의 가고시마의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고 [‘담담’하게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비판적인 뉘앙스를 전하는] 교사도 있다.

② ‘특공’을 주제로 한 지역의 전쟁 체험 알기(후지이)

[지역과 전쟁의 연관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전쟁은 우리들 가까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미래에 전하는 계승자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엄체호(병커) 등 [학생과 함께 전쟁 유적을 순회하는] 것이나 [‘특공’의 역사부터 지역의 기지 유치에 대해 생각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③ 사실 관계를 알고, ‘당신이라면 특공에 가겠는가’를 물음(에스미)

학생들의 대부분이 직접 부딪혀 공격한다는 이미지로만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특공의 경위나 사실 관계를 특설 수업에서 가르친다]. 이때에는 [지란 평화회관에서 학습을 기반으로 보충 설명을 한다]. 그 후 [특공대원의 마음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당신이라면 특공에 가겠는가’를 묻는다.

④ 학생들이 조사한 다양한 특공관의 밸런스를 취함(히라카와)

[특공대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향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직소 학습법의 한가지 입장으로서는 특공대원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학생은 조사한 것의 [확실한 해석의 밸런스]를 취함으로써 교실 내에 다양한 특공관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실사회와의 연결 역할로서 교사를 자리매김하는] 것이나 [스스로도 몰랐던 것을 자기노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나타낸다.

4. 조사 결과 (2) ‘사회과’에서 ‘특공’을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

‘가르쳐야’ 하지만 ‘파고 들 수 없다’

더 깊게 파고 들면 좋은 학습이 되겠죠. 물론 의무 교육이니까. 라는 것도 이상하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타)

아직 이 주제의 깊은 영역에는 쉽게 파고들 수 없고, 결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첫인상입니다. (대구치)

역시 민감한 소재라서 방어적이 됩니다. 진짜로 하려고 하면 방어적이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에스미)



왜 ‘특공’을 가르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파고 들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인가?



4. 조사 결과 (2) '사회과'에서 '특공'을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

① 특공 미화에 대한 저항과 동요

많은 교사가 <특공을 미화하는 것에 대한 위화감>, <감정론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와 같이 [특공을 미담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불쌍한 특공대원 이미지에 대한 위화감>, <'특공' = 지란에 대한 위화감>과 같이 [지란이나 평회회관이 표상하는 '특공' 이미지에 대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교사 안에는 [특공대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는 교사도 있었다. 또한, 특공극의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교사가 [미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다양한 입장, 이야기 속에서 교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어려움

교사는 <정해진 견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수히 존재하는 <단편적인 정보의 제시 방식>에 주의해야 하는 [쟁점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특공'에 관한 다양한 감정을 가진 교사는 <자신의 정보/생각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에 관한 불안을 가지는 등, [교사 자신의 입장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 외적인 요인으로서 <가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을 가르치는 것과 유사>나, <편향 비판의 압박> 등 [이해 관계자가 있는 와중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교사도 있었다.



4. 조사 결과 (2) '사회과'에서 '특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

③ 스스로가 '특공'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함

'특공'에 다양한 입장과 이야기가 내재한 것은, 스스로가 '특공'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인식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것은 [특공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교사 자신의 특공 인식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사회과에서 특공대원 개개인에게 주목하는 것의 어려움>, <마지막 질문이 생각나지 않음>과 같은 [특공대원의 현실에 다가가기 어렵다] 같은 사회과의 수업 실천 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었다.

④ 교사의 (역사)교육관과 '특공'이 연결되지 않음


일부 교사는 <역사로부터 현재를 보는 시점을 획득시킨다>, <역사의 큰 흐름과 '특공'이 이어지지 않음>과 같은 교사가 생각하는 역사 수업의 목적이나, <역사적 사실과 현상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공'을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로 [교사의 역사 수업의 이상적인 모습과 '특공'의 불일치]를 들었다. 또한 ['특공'보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특공'을 교재화하는 일은 없다고 대답한 교사도 있었다.



4. 조사 결과 (3)갈등이 생기기 어려운 특공극: ‘개입하지 않음’ or ‘승화함’

언급된 ‘특공극’의 패턴

- ①: 특공 대원의 유서를 주제로 한 연극
- ②: 도미야 식당을 무대로 한 연극
- ③: 지역이 경험한 ‘특공’을 재현하는 연극
- ④: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승화하는 연극
- ⑤: 종군 카메라맨 시점에서의 연극
- ⑥: 특공을 지지한 가족에 초점을 맞춘 연극



매년, 어느 학교에서나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공극’은 사회과의 수업보다도 왕성하게 실천되고 있었다.



4. 조사 결과 (4) 특공극에 수렴하는 프로세스

① 평화 학습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평화 학습에서 관례인 평화극]의 한 패턴으로서 '특공극'이 있으며, 사회과 교사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해야 하는 사람이 만드는] 형태가 되어있다.

② '어린이 주체'의 평화 학습

종합 학습은 [행동 소화적인 학습 활동]이 되기 쉽고, ['평화 학습'의 탐구 테마 중의 하나로서 '특공'을 배움],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조사하는 '어린이 주체'의 평화 학습이 되는 일이 많다. 한편 <지역, 국민의 전쟁 실태를 초점화하여 배우는>기회가 되며 [사회과 학습의 불충분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③ 지란 연수를 위한 평화 학습

특공극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는, [수학여행의 사전 학습으로서 지란 연수]를 실천하는 학교도 있으며, [연수를 위해 '특공'을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연수에서 학생은 훈화로부터 [특공대원에 감명을 받는다].

④ 평화 학습(특공극)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자세

[연극의 창작 과정은 다양]하지만 연극의 [내용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중립적으로' 연극을 작성하는] 사회과 교사가 많다. 한편으로, [교사의 마음을 반영하는] 연극이나 종합 학습을 계획한 교사도 있었다.

※ 연극은 어느 정도 픽션이 있으며, 따라서 '비개입적' 또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갈등이 생기기 어려움?

5. 고찰과 결론 (1) '특공'을 가르치는 것과 감정적인 갈등의 연관

Question

'사회과'와 '특공극'은 실천하기 쉽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공'을 다루는 어려움 안에는 어떠한 '갈등'이 존재하는가?

사회과 '가르쳐야' 하지만 '파고 들 수 없다'

- ① 특공 미화에 대한 저항과 동요 ② 다양한 입장, 이야기 속에서 교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어려움
- ③ 스스로가 '특공'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함 ④ 교사의 (역사)교육관과 '특공'이 연결되지 않음

사회과에서의 '특공'을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중립성' 등의 논쟁 문제에 부수하는 곤란성 뿐만 아니라, 가고시마현에 사는 교사의 인식론적 및 감정적인 갈등에 있다.

평화 학습(종합) '개입하지 않음' or '승화함'

- ① 평화 학습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② '어린이 주체'의 평화 학습
- ③ 지란 연수를 위한 평화 학습 ④ 평화 학습(특공극)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자세

픽션이 허용되는 연극, 어린이 주체의 '종합'차원에서의 실천 용이성
→ 교사의 갈등이 생기기 어려움?

5. 고찰과 결론 (2)기억의 계승에서 유지의 계승으로?

종래, 일본에서 이미지화 되어온 ‘특공’에 관한 평화 교육

↳ 특공을 모두 부정한다 = 평화 교육적인 특공 수용(이노우에, 2019)

× 특공을 ‘모두 부정’하는 교사는 존재하지 않고, 특히 평화극은 ‘유지의 계승’ 패턴과 유사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승화’되는 현상이 보였다

‘특공’을 기억하는 것의 시대적인 변화는 평화 교육 및 사회과 교육의 문맥에서도
동시 진행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임지현,2022)



전사자 숭배의 가장 극적인 예시는, 가미카제 특공대의 희생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 그들의 순수한 죽음은, ‘죽은 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영혼의 연결’을 모태로 하는 민족의 이야기로 승화되기 쉽다. 가고시마현의 지란 특공 기지 근처 식당 ‘도미야’의 여주인이었던 도리하마 도메와 젊은 특공대원들의 일화는 전사자 숭배의 집단 심리를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억으로 뿌리박았다.

현상황에서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5. 고찰과 결론(3) 사회과에서 ‘특공’을 다루는 교육적 가능성

특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전망

‘일본인은 (전쟁의)실패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었겠지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것을 70년 전의 일본과 바꿔 생각했을 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시다’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전쟁’을 다시 파악하는] 교사도 있다. 그러한 교사 중에는 가까운 지역의 특공 사실을 파고들거나 사고로 많은 대원이 목숨을 잃은 사실 등, [정신론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파고드는] 것이나 특공대원 개인에게 일부러 주목하는 것을 통해 [특공대원 개인의 내면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공 작전을 지지한 사회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찾아낸다. 또한, ‘특공’과 현대의 사회 문제(원자력 발전소 문제 등)와 구조적인 유사가 발견된 것으로부터 [특공을 행한 책임이나 집단 심리를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특공 작전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배우는] 수업이 ‘특공’에 대한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교사도 있다.

‘특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망은 가지고 있으나 수업화까지는 진행되지 않음.

교사의 감정적인 갈등을 이해하면서도, 계승의 단락화나 희생자의식에 대항하는 사회과, 평화 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Difficult History’를 배우는 것을 연구하는 의미

6. 참고 문헌

Kello, K. (2016). Sensitive and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lassroom: Teaching history in a divided society.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22(1), 35-53.

Zembylas, M., & Kambani, F. (2012). The teaching of controversial issues during elementary-level history instruction: Greek-Cypriot teachers' perceptions and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40, 107-133.

임지현(2022)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 국경을 넘는 「기억」의 전쟁』 (사와다 가쓰미 번역) 도요케이자이신포샤

이노우에 요시카즈(2015) 「기억의 계승에서 유지의 계승으로 -지란 순례의 활기 불어넣기에 착안하여」 후쿠마 요시아키·야마구치 마코토 편집 『「지란」의 탄생 - 특공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가시와쇼보

(2019) 『미래의 전사를 마주하기 위한 노트』 소겐샤

(2021) 『특공 문학론』 소겐샤

야마모토 겐지(2022) 『「특공」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분켄